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 총력

지지서명 80만명 육박 ... 100만 달성 위해 힘모으자

간협 아고라 홈페이지에서 서명
agora.koreanurse.or.kr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대한간호협회 아고라 홈페이지 메인화면. 3월 28일 오후 6시 기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지지서명자 100만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간호법 제정 지지서명자는 3월 28일 오후 6시 기준 총 79만 7173명이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추진해온 간호법 제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활동을 강화하면서, 100만 서명운동의 불길을 재점화했다.

간호법 제정은 제8차 대한간호협회 장기사업계획에 반영돼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건의한 대한간호협회 정책제안서에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요과제로 포함돼 있다.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은 대한간호협회 아고라 홈페이지(agora.koreanurse.or.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서명지 양식을 다운받아 오프라인으로 참여해도 된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서명을 받기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국의 회원들에게 3월 22일 발송했다.

이메일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며 “간호사가 행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는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게 되며 △환자는 지역 간 차별 없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누리게 되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에 힘입어 아고라 온라인 서명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으며, KNA 대학생 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힘을 보태고 있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전개해왔다.

시도간호사회가 중심이 돼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대장정을

펼쳤다.

대장정에 참가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지자체 광장을 비롯해 지역 축제현장, 전통시장, 대학캠퍼스 등을 누비며 국민들을 만나 간호법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간호법 제정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설명하고 지지서명을 이끌어 냈다. 전국 대장정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졌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물론 국민들과 간호사 가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간호사들까지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국민 5명 중 1명만 ‘양성평등하다’ 생각 직장 내 성희롱 처벌돼야 한다는 인식 높아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은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000여가구 7399명을 대상으로 가족평등·경제활동·신체·안전 등에 관한 양성평등 인식 및 수준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6년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향후 중장기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된 것으로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14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인식 수준에 대해 ‘양성평등하다’는 응답이 21.0%로 나타났다. 여성이 불평등하다(62.6%)가 가장 높았고, 남성이 불평등하다(16.4%), 양성평등하다(21.0%) 순이었다. 5년 후 전망에 대해서는 ‘양성평등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38.5%로 현재 21.0%보다 17.5%p 높게 나타났다.

폭력에 대한 인식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2.1%로 나타났다. 여성(88.8%)이 남성(75.3%)보다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될 수 없고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폭력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84.5%)이 가장 높았고, 데이터폭력(80.3%), 성매매(78.4%), 부부폭력(69.5%) 순이었다.

각종 대중매체 상의 성차별적 표현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은 온라인상 여성 비하 표현(78.2%)이 가장 높았고, 인터넷 배너 광고의 선정성(77.3%), 여성의 외모를 희화화하는 TV 오락프로그램(64.4%), 남성의 외모를 희화화하는 TV 오락프로그램(60.7%) 순이었다.

건강 및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상태(10점 만점)의 경우 여성 5.64점, 남성 6.13점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10점 만점)는 여성 5.53점, 남성 5.72점이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선 개선 과제로는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 저조, 성별 임금 격차,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 저조, 성별 임금 격차,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간호사가 행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대한민국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간호법 제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 1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는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게 됩니다.**
- 2 **환자는 지역 간 차별 없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누리게 됩니다.**
- 3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대한간호협회 아고라 홈페이지
(http://agora.koreanurse.or.kr)에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가사 및 육아에의 남성 참여 저조, 성별 임금 격차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정책수요를 면밀히 검

토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해 나갈 예정이다.

암 검진과 관련 지난해 간암 검진 주기 단축 및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낮춘 데 이어 올해는 국립암센터 등 전국 10여개 기관에서 30갑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암 징복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도 활성화해 한·미·일 3국간 암 역학 정보 등을 공유하고, 폐암·위암·대장암 환자 1만명의 유전자 정보 확보 및 정밀의료를 활용한 환자 임상실험 실시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주혜진 기자 hjoo@

호스피스 대상 질환 8월부터 확대

올해 8월부터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법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부분은 올해 8월 4일, 연명의료

제정안에서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기준이 마련됐다. 말기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질환 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와

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정의했다.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판단 기준을 마련했으나,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정의했다.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도 마련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기록 및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국가암관리 예방-검진-호스피스-연구 주력

국가암관리를 위해 예방, 검진, 호스피스, 연구 등 네 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암 예방의 날 기념사를 통해 “1995년부터 이

뤄진 보건의료계 전문가들과 정부의 합심된 노력으로 암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10만명당 300명 미만으로 감소한 289.1명을 기록했다”면서 “5년 상대 생존율도 10년 전보다 약 16.4%p

증가한 70.3%에 달하는 등 암은 이제 퇴치하거나 오랫동안 관리할 질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암관리를 위해 예방, 검진, 호스피스, 연구 등 네 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먼저 암 예방을 위해 신축활동, 절주 등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암 예방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암 검진과 관련 지난해 간암 검진 주기 단축 및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낮춘 데 이어 올해는 국립암센터 등 전국 10여개 기관에서 30갑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암 징복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도 활성화해 한·미·일 3국간 암 역학 정보 등을 공유하고, 폐암·위암·대장암 환자 1만명의 유전자 정보 확보 및 정밀의료를 활용한 환자 임상실험 실시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주혜진 기자 hjoo@

신발도 과학이다. 이제 건강을 신자!

발 피로를 풀어주는 세계적인 특허제품인 NABE 간호사 건강신발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5컬레이상 주문시 : 10%DC
10컬레이상 주문시 : 15%DC
20컬레이상 주문시 : 20%DC

NAVER 검색창에 **나베간호화** 를 쳐보세요

<p>•NB-N02(샌들) 인조가죽 ₩30,000 Size : 225~250</p>	<p>•NB-N01(샌들) 인조가죽 ₩30,000 Size : 225~250</p>	<p>•NB-C03(캐주얼) White ₩40,000 천연 소가죽 Size : 225~250</p>	<p>•NB-C01(캐주얼) White ₩34,000 고급 인조 가죽 Size : 225~250</p>
<p>•NB-C05 - White - 소재 : 합피, 소 가죽 - size : 225~250mm - 가격 : White ₩34,000</p>	<p>신제품(고급)</p>		<p>•NB-C07(캐주얼) 진반색 ₩60,000 천연 소가죽 Size : 225~250</p>
<p>•NB-C02(고급형 캐주얼) Black ₩60,000 천연 소가죽, 돈피 Size : 225~250</p>	<p>•NB-SW01(여성용 샌들) Black / Beige 내피 : 소가죽 외피 : 고급인조가죽 Size : 225~250 ₩40,000</p>	<p>남성용 구두 NB-MD02 Brown 소재 : 소가죽 Size : 245~280mm 140,000 → 60,000</p>	<p>스니커즈 Black/White 소재 : 최고급 소가죽 Size : 225~280mm 180,000 원</p>

2컬레이 이상 주문시 : 10% 할인